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Press Coverage

Presidential Roundtable for Foreign Investors

Grand Ballroom, Four Seasons Hotel Seoul
Monday, February 13, 2017

Table of Contents

Presidential Roundtable for Foreign Investors February 2017

I. Speech Transcript

1. Full Speech By James Kim

II. TV News (2)

1. MBC News / 문화방송 (February 13, 2017)
   황교안 "굳건한 안보로 외투기업 경제활동 보장"

2. Korea TV / 국민방송 (February 13, 2017)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지속 투자' 당부

III. Newspaper (4)

1. Maeil Business Newspaper / 매일경제 (February 14, 2017)
   외국인 투자기업들 "세무·환경 조사 준비에 날샌다"

2. The Chosun Ilbo / 조선일보 (February 14, 2017)
   黃, 외국기업인 만나 "강력한 안보 구축"

3. Seoul Shinmun / 서울신문 (February 14, 2017)
   黃대행 “굳건한 안보태세 구축…외국 기업의 안정적 투자 보장”

4. Korea Economic Daily / 한국경제 (February 14, 2017)
   인사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IV. Internet News (37)

1. Pulse News / 매일경제신문 (February 14, 2017)
   Excess audits, regulations, levies discourage investment in Korea: foreign CEOs

2.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黃권한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종합)

3. The Herald Business / 헤럴드경제 (February 13, 2017)
   “조세감면 확대·신산업 추가…外投기업 지원제도 전면개편”

4. The Kyunghyang Shinmun / 경향신문 (February 13, 2017)
   황교안 권한대행 “북 심각한 도발이지만, 투자자들 걱정 말고 투자해달라”

5. E Today / 이투데이 (February 13, 2017)
황 권한대행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근본적 개편”

6. The Herald Business / 헤럴드경제 (February 13, 2017)
[설상가상 한국경제] 黃 권한대행 “외투기업 지원제도 전면 개편”…외투기업 간담회장 방문

7. E Daily / 이데일리 (February 13, 2017)
黃권한대행 "北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심각한 도발행위"

8. Naeilshinmoon / 내일신문 (February 13, 2017)
"외투기업 지원제도 개편"

9. The Munhwa Ilbo / 문화일보 (February 13, 2017)
구제역·北도발·특검 연장 압박… 시험대 선 황교안

10. The Construction Economic Daily / 건설경제 (February 13, 2017)
정부,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근본적 개편 추진

11. YTN / 와이티엔 (February 13, 2017)
황교안 권한대행 "외국인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12. CPBC News / 가톨릭평화방송 (February 13, 2017)
황교안 "北 도발에 엄정한 조치, 모든 노력 다할 것"

13. I News 24 / 아이뉴스 24 (February 13, 2017)
황교안 "北 미사일 만반의 대응태세, 투자해달라"

14. The Herald Business / 헤럴드경제 (February 13, 2017)
黃 “北 도발 만반의 대응…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15. Money Today / 머니투데이 (February 13, 2017)
황 대행 "북도발에 만반의 대응, 외투기업 경제활동 보장할 것"

16. E Today / 이투데이 (February 13, 2017)
대권도전 부정 안하는 黃 대행, 경제챙기기 행보 해석 분분

17. KBS News / 한국방송사 (February 13, 2017)
황 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18. Asia Today / 아시아투데이 (February 13, 2017)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외국인 투자자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한다”

19. SBS News / SBS뉴스 (February 13, 2017)
황 권한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20. The Asia Business Daily / 아시아경제 (February 13, 2017)
黃권한대행 "北 도발, 엄정 조치 이뤄지도록 노력"

21. News1 / 뉴스1 (February 13, 2017)
黃권한대행 "외국인 투자기업, 우리 경제에 지속 투자해달라"

22.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黃권한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23. Dailian / 데일리안 (February 13, 2017)
황교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데 최선"

24.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황 대행 "외투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25. Aju Business Newspaper / 아주경제 (February 13, 2017)
황교안 권한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26. Joongdo Ilbo / 중도일보 (February 13, 2017)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

27. Korea.net / 정책브리핑 (February 13, 2017)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28.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黃권한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종합2보)

29. Chung Cheong Today /충청투데이 (February 13, 2017)
청와대 “정부 안보태세 굳건 외투기업 경제활동 보장”

30. DaeJeon Today / 대전투데이 (February 13, 2017)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31. Seoul Economic Daily / 서울경제 (February 13, 2017)
황 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투기업 안정적 활동 보장"

32. Newspim / 뉴스핌 (February 13, 2017)
황교안 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투기업'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33. Shin A Ilbo / 신아일보 (February 13, 2017)
황교안 “굳건한 안보로 외투기업 경제활동 보장”

34. News1 / 뉴스1 (February 13, 2017)
黃대행 "北도발에 만반의 대응…외투기업 경제활동 보장"(종합)

35. Sisa Week / 시사위크 (February 13, 2017)
황교안의 대선출마 변수는 구제역과 북한 미사일

36. Asia Today / 아시아투데이 (February 13, 2017)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북한 도발 만반 대응, 외국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37. The Daegu Shinmun / 대구신문 (February 13, 2017)
黃 대행 “외투기업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V. Photo News (52)

1.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AMCHAM chief at podium

2.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Acting President Hwang with foreign investors

3.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Acting President Hwang with foreign investors

4.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참석자들과 환담 나누는 황 권한대행

5.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황 권한대행,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6.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주한상의 대표들 만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7.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황교안 권한대행,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8.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황교안 권한대행,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9.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주한상의 대표들 만난 황교안 권한대행

10.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황교안 권한대행,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11.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황교안 권한대행,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12.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황교안 권한대행,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13.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황교안 권한대행,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14.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황교안 권한대행,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15.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참석한 황교안 권한대행

16.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인사말하는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17.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박수 치는 황교안 권한대행

18.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환담 나누는 황교안 권한대행

19.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주한상의 대표들 만난 황교안 권한대행

20.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인사 나누는 황교안 권한대행

21.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환담 나누는 황교안 권한대행

22.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인사말

23.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24.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25.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26.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27.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28.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29.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인사말하는 황 대행

30.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단상으로 나가는 황 대행

31.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단상으로 나가는 황 대행

32.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인사말하는 황 대행

33.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인사말하는 황 대행

34.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물 마시는 황 대행

35.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황 대행,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인사

36.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황 대행,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인사

37.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황 대행,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인사

38.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황 대행,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인사

39.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40.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41.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42. Yonhap News / 연합뉴스 (February 13, 2017)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43. News1 / 뉴스1 (February 13, 2017)
주한상의 대표들 만난 황교안 대행

44. News1 / 뉴스1 (February 13, 2017)
인사 나누는 황교안 권한대행

45. Asia News Agency / 아시아뉴스통신 (February 13, 2017)
황교안 권한대행,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방문

46.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47.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48.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황 권한대행

49.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인사 나누는 황 권한대행

50.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인사 나누는 황 권한대행

51.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인사말하는 황 권한대행

52. NEWSIS / 뉴시스 (February 13, 2017)
인사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Prime Minister's Office Press Release

Presidential Roundtable for Foreign Investors

Grand Ballroom, Four Seasons Hotel Seoul
Monday, February 13, 2017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7. 2. 13(월)	
		작성 문의	국무조정실 기업수출지원과 과장 윤현주 / 서기관 이용훈 (Tel. 044-200-2217)
* 엠바고 : 2.13(월) 09: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주요내용

황교안 권한대행, 2 월 13 일(월) 오전,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하여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22 명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하였음

○ 황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주길 당부

- 아울러, 외국인 투자가 고용, 수출, 투자, 산업경쟁력 등에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음

○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 확대,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FTA 타결을 추진하여 외투기업이 한국을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황교안 권한대행은 2 월 13 일(월) 오전,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하여, 주한 외국인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22 명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 (참석) ▲주한 외국상의 대표 9 명, 외국인 투자기업 CEO 13 명 등 총 22 명, ▲정부(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관련기관 (김재홍 코트라 사장)

○ 이번 방문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우리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ㅇ ‘15, ’16 년 2 년 연속으로 200 억불이 넘는 사상 최대의 투자기록을 세운 외국인 투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투자 추이(신고기준) : ‘11 년 136.7 억불→ ‘12 년 162.9 억불 → ‘13 년 145.5 억불→ ‘14 년 190.0 억불 → ‘15 년 209.1 억불 → ‘16 년 213.0 억불

□ 황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정부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여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ㅇ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외환 시장의 면밀한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ㅇ 해외 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ICT 와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매출의 13%, 수출의 18%, 고용의 6%를 담당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강화*,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평가**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5 년 100%+2 년 50%) 대상에 소재부품, 공정기술 등 신기술목록 추가(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17.2 월)

**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제한하고 있는 28 개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 영향평가 실시(‘17.상)

ㅇ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 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FTA 를 조속히 타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Speech Transcript

Presidential Roundtable for Foreign Investors

Grand Ballroom, Four Seasons Hotel Seoul
Monday, February 13, 2017

Speech Transcript

Speech Transcript	James Kim, CEO of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Date	Monday, February 13th
Venue	Grand Ballroom, Four Seasons Hotel Seoul

I am greatly honored to be here representing AMCHAM and its 700+ member companies operating here in Korea.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for 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for your outstanding leadership in helping to stabilize Korea along with the encouragement and support towards the foreign-investment community.
This is my fourth year as the Chairman of AMCHAM and this year could be the most challenging, but potentially the most important and exciting period as we seek a "win-win"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e of our top priorities is to partner with the Korean government to help generate more opportunities together, involving both KORUS FT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do this, we need to ensure that the American multinational company CEOs must have the conviction that Korea is and can be an attractive country to continue with its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CEOs of these companies are Korea's best and the most important advocates.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AMCHAM has been more integrated than ever with initiatives from the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from MOTIE. I have seen MOTIE Minister Joo Hyunghwan more than he probably wants to see me. Just last week, MOTIE Minister Joo hosted a meeting with the automotive CEOs and his style of engagement and leadership was very helpful.

You should also know that AMCHAM hosted both the Deputy Prime Minister Yoo and MOTIE Minister Joo at AMCHAM's Fireside Chat where we conduct one on one dialogues in front of our general membership. These meetings again demonstrate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willing to listen and take action.

President Trump is also a man of action. In just a few short weeks, he has begun implementing many of his campaign pledges, including those that focus on business and trade. The new Trump administration has made it clear that it will focus its trade policy on bilateral agreements than regional.

Since 1985, each year, our delegation from AMCHAM visits Washington D.C. to meet with senior officials and policy makers. These visits, known as the "Doorknock," have played a key role in helping administration and congressional leaders form policies affecting the economic and security alliance. This year's upcoming Doorknock can be the most crucial visit in our history.

This year, we are also celebrating 64 years of AMCHAM in Korea. I am very proud of the fact that AMCHAM continues to be the largest foreign chamber and the "go to" organization for both American and Korean stakeholders. You can count on us to help create for a "win-win" partnership.

Thank you.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TV News

Presidential Roundtable for Foreign Investors

Grand Ballroom, Four Seasons Hotel Seoul

Monday, February 13, 2017

TV News

Media	MBC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굳건한 안보로 외투기업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200/article/4217636_21376.html		
Source	Newspape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앞으로 더욱 단단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 News

Media	Korea TV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지속 투자' 당부		
Link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32803		
Source	Newspaper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주한 외국인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찾았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격려사에서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단단히 해 나갈 것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또 한국 정부가 당면한 리스크 관리와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과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한국이 강점을 지닌 과학기술과 ICT 를 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9 명과 외국인 투자기업 CE0 13 명 등 22 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Newspaper

Presidential Roundtable for Foreign Investors

Grand Ballroom, Four Seasons Hotel Seoul
Monday, February 13, 2017

Newspaper Clipping

Media	Maeil Business Newspaper	Date	February 14, 2017
Title	외국인 투자기업들 "세무·환경 조사 준비에 날샌다"		
Link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02303		
Source	Newspaper		

黃 권한대행 만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쓴소리

"세무·환경 조사 준비에 날샌다"

"세무조사 환경조사 등 각종 정부 조사가 너무 많습니다. 1년 내내 진행되는 조사만 준비하다 보면 정작 사업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외국계 상의 관계자)

"한국에서 사업할 때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가 '지역 중소 상인을 위한 기금을 내라'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강제 조치죠. 정부가 투자 환경 조성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한국에만 있는 정책부터 고쳐 나가야 해요."(대형 외국계 기업 대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대표들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식 '갈라파고스' 규제에 이 같은 쓴소리를 던졌다.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정서 분위기를 탄 정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 대표와 만나 지속적인 투자를 부탁했다. 행사에는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조익서 오티스엘리베이터 사장, 존 슐트 주한미국상의 대표 등 주한 외국인상공회의소와 외국계 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만 있는 '나 홀로' 규제와 강도 높은 세무조사, 노동규제 등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 유럽계 기업 대표는 "법인세 인상이 가장 걱정"이라며 "정치권에서 법인세 공제 감면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절대 세율 자체를 높이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세금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한국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형 외국계 기업 임원은 "정책 투명성이 부족해 외국 기업이 언제 세무조사, 규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지 알 수 없다"면서 "이런 불확실성 속에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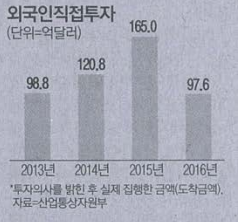
최근 외국인직접투자(FDI) 움직임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FDI(213억달러)는 전년 대비 1.9% 불어나며 명목상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해외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 후 실제 국내에 집행한 자금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연간 FDI는 97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0.9% 급감했다. 이는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되며 해외 기업들이 당초 투자를 신고했던 금액보다 집행된 자금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황 권한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이스라엘·에콰도르와도 조속히 FTA를 타결해 외투기업이 한국을 세계 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 위험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굳건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해 경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환·강영운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앞줄 왼쪽)가 13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법인세인상 움직임에 투자 꺼리는 곳 많아
黃 "외국인 신기술투자 세제혜택 늘릴 것"



"세무조사 환경조사 등 각종 정부 조사가 너무 많습니다. 1 년 내내 진행되는 조사만 준비하다 보면 정작 사업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외국계 상의 관계자)

"한국에서 사업할 때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가 '지역 중소 상인을 위한 기금을 내라'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강제 조치죠. 정부가 투자 환경 조성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한국에만 있는 정책부터 고쳐 나가야 해요."(대형 외국계 기업 대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대표들은 13 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식 '갈라파고스' 규제에 이 같은 쓴소리를 던졌다.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정서 분위기를 탄 정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 대표와 만나 지속적인 투자를 부탁했다. 행사에는 제임스 김 한국 GM 사장(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조익서 오티스엘리베이터 사장, 존 슐트 주한미국상의 대표 등 주한 외국인상공회의소와 외국계 기업 대표 22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만 있는 '나 홀로' 규제와 강도 높은 세무조사, 노동규제 등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 유럽계 기업 대표는 "법인세 인상이 가장 걱정"이라며 "정치권에서 법인세 공제 감면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절대 세율 자체를 높이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세금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한국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형 외국계 기업 임원은 "정책 투명성이 부족해 외국 기업이 언제 세무조사, 규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지 알 수 없다"면서 "이런 불확실성 속에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FDI) 움직임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FDI(213 억달러)는 전년 대비 1.9% 불어나며 명목상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해외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 후 실제 국내에 집행한 자금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연간 FDI 는 97 억 6000 만달러로 전년 대비 40.9% 급감했다. 이는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되며 해외 기업들이 당초 투자를 신고했던 금액보다 집행된 자금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황 권한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이스라엘·에콰도르와도 조속히 FTA 를 타결해 외투기업이 한국을 세계 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 위험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굳건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해 경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AMCHAM Since 1953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Newspaper Clipping

Media	The Chosun Ilbo	Date	February 14, 2017
Title	黃, 외국기업인 만나 "강력한 안보 구축"		
Link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4/2017021400240.html		
Source	Newspaper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A5

黃, 외국기업인 만나 "강력한 안보 구축"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참석
"신기술 투자 조세 감면 확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단단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 체제를 갖춰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해 믿음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며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등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간담회에는 존 슐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 위하이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 수석대표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9명과 외국인 투자 기업 CEO(최고경영자)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두고 황 권한대행이 '안보'와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한편 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이 전날 북한 미사일 발사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매뉴얼에 따라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강력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정녹용 기자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외국 기업인과 악수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 일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단단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 체제를 갖춰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해 믿음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며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등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간담회에는 존 슐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 위하이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 수석대표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9 명과 외국인 투자 기업 CEO (최고경영자) 등 22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두고 황 권한대행이 '안보'와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한편 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이 전날 북한 미사일 발사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를 주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매뉴얼에 따라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강력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Newspaper Clipping

Media	Seoul Shinmun	Date	February 14, 2017
Title	黃대행 "굳건한 안보태세 구축...외국 기업의 안정적 투자 보장"		
Link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14002009&wlog_tag3=naver		
Source	Newspape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 일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24 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융·외환·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 대응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경제에 대해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존 슐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등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9 명과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13 명 등 22 명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15 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렵지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NSC 상임위를 개최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경우 의장 주재 NSC 가 열리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매뉴얼대로 상임위가 열린다.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며 "오늘 황 권한대행의 추가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Newspaper Clipping

Media	The Korea Economic Daily	Date	February 14, 2017
Title	인사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4083		
Source	Newspaper		



황교안 대행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앞줄 왼쪽 네 번째)이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황 대행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앞줄 왼쪽 네 번째)이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황 대행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Internet News

Presidential Roundtable for Foreign Investors

Grand Ballroom, Four Seasons Hotel Seoul
Monday, February 13, 2017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Pulse News	Date	February 14, 2017
Title	**Excess audits, regulations, levies discourage investment in Korea: foreign CEOs**		
Link	http://pulsenews.co.kr/view.php?&year=2017&no=104451		
Source	Internet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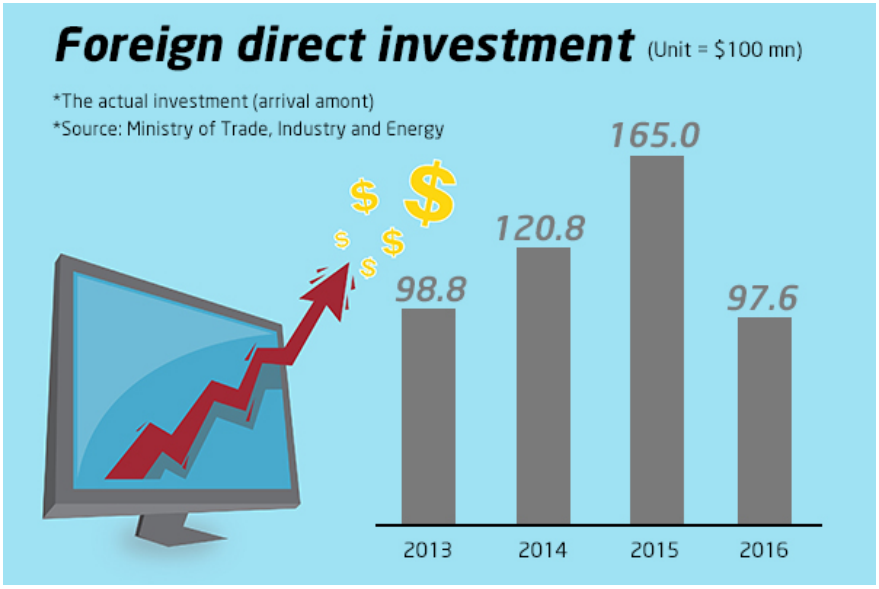
Prime minister and 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and chairman of the AMCHAM James Kim are shaking hands at a roundtable for foreign investors held at the Four Seasons Hotel in central Seoul.

Time-consuming audits, too many regulations and semi-tax levies, rigid labor market and anti-business sentiment make Korea a difficult place to do business, and foreign investment won't likely pick up in Korea without dramatic actions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foreign entrepreneurs said.

"There are just too many government audits. It feels like we spend the whole year preparing for government tax, environment, or other audits," said a member of the foreign business chamber.

"The first thing I was asked to do from the government upon starting business here was to donate money for local merchants. It wasn't a suggestion, but a demand. Instead of all the rhetoric, the government must do away with the practices unique in this country to make environment for foreign business friendly," said a CEO of a foreign enterprise.

Foreign businessmen poured out complaints in their meeting with Prime Minister and 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on Monday. Hwang met with foreign investors to appeal for confidence in the Korean economy amid protracted vacuum in leadership as scandal-ridden president is awaiting impeachment trial. Twenty-two businessmen attended the meeting, including James Kim, chairman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and head of GM Korea and John Schuldt, President of AMCHAM Korea.



What worried them more was that environment could get worse.

"The talk of hike in corporate tax rates is the biggest worry. Many foreign companies are hesitating investment here due to tax factor," said another corporate head.

Presidential-hopefuls from the opposition have been suggesting higher taxes for large companies and rich individuals to ensure more funding for social welfare.

"Lack of clarity in public policy also makes investment difficult," another attendee said.

Hwang said the government was mulling various incentives to draw foreign investment such as exempting taxes for new technologies. He added that Korea could be a gateway to other markets as the country is rich with free trade deals and now working on to include China, Israel, and Ecuador to the list.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黃권한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종합)		
Link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3/0200000000AKR20170213065800001.HTML?input=1195m		
Source	Internet News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행위"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아세안·중국 등 FTA 확대"

황권한대행 페이스북 팔로워 4만2천명으로 두달새 2배 늘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일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단단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를 당부하는 등 경제 행보에 주력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회복, 내수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수출을 가속화하고 범정부적으로 해외인프라 사업수주를 지원해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지난해 외국인 투자규모가 사상 최대, 2 년 연속 200 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록을 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의 FTA 를 조속히 타결하겠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존 슐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위하이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수석대표, 후지요시 유코(藤吉優行)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9 명과 외국인 투자기업 CEO 13 명 등 22 명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젊은 과학기술인 15 명과 간담회를 한다.



한편 황 권한대행의 페이스북 계정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 일 현재 황 권한대행 페이스북의 팔로워는 4 만 2 천여 명이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해 12 월 7 일 "2 만 명이 넘는 페친분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보면 두 달여 동안 2 배가 넘는 팔로워가 생긴 것이다.

또 '좋아요'를 누른 방문자도 3 만 9 천여 명에 달한다. 지난달 30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는 5 천 200 여 명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The Herald Busines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조세감면 확대·신산업 추가…外投기업 지원제도 전면개편”		
Link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13000443		
Source	Internet News		

황 권한대행, 외투기업 간담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 일 “해외 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 ICT 와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강화와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평가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외국인 투자기업 격려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여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외환 시장의 면밀한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존 슐트 주한미국상의 대표, 류 하이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후지요시 유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의 대표,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 마틴 트리코드 HSBC 은행장 등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등 모두 22 명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번 간담회장 방문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우리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외국인 투자(신고기준)는 ▷2011 년 136 억 7000 만달러 ▷2012 년 162 억 9000 만달러 ▷2013 년 145 억 5000 만달러 ▷2014 년 190 억달러 ▷2015 년 209 억 1000 만달러 ▷2016 년 213 억달러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매출의 13%, 수출의 18%, 고용의 6%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5 년 100%+2 년 50%) 대상에 소재부품, 공정기술 등 신기술목록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안으로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제한하고 있는 28 개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황 권한대행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FTA 를 조속히 타결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The Kyunghyang Shinmun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권한대행 “북 심각한 도발이지만, 투자자들 걱정 말고 투자해 달라”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31136011&code=910100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외국인 투자기업 만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 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도발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걱정 말고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 및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전날 시험발사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강력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전날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의장(대통령) 주재 NSC 가 열리며 그 외의 경우는 매뉴얼대로 NSC 상임위가 열린다”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권한대행의 추가 조치는 없다”며 “정부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 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최소한 유엔 안보리가 규탄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E Today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 권한대행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근본적 개편”		
Link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54414		
Source	Internet News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방문…“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매출의 13%, 수출의 18%, 고용의 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타결하는 등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정부는 당면한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회복, 내수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4 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융·외환·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며 "수출을 가속화하고, 해외인프라 사업수주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존 슐트 주한미국상의 대표, 류 하이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후지요시 유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의 대표,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 마틴 트리코드 HSBC 은행장 등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등 모두 22 명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번 간담회장 방문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우리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The Herald Busines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설상가상 한국경제] 黃 권한대행 "외투기업 지원제도 전면 개편"...외투기업 간담회장 방문		
Link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13000156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 일 "해외 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 ICT 와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강화와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평가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헤럴드경제 DB]

황 권한대행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여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외환 시장의 면밀한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존 슐트 주한미국상의 대표, 류 하이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후지요시 유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의 대표,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 마틴 트리코드 HSBC 은행장 등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등 모두 22 명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번 간담회장 방문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우리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외국인 투자(신고기준)는 ▷2011 년 136 억 7000 만달러 ▷2012 년 162 억 9000 만달러 ▷2013 년 145 억 5000 만달러 ▷2014 년 190 억달러 ▷2015 년 209 억 1000 만달러 ▷2016 년 213 억달러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매출의 13%, 수출의 18%, 고용의 6%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달안으로 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5 년 100%+2 년 50%) 대상에 소재부품, 공정기술 등 신기술목록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안으로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제한하고 있는 28 개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황 권한대행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FTA 를 조속히 타결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E Daily	Date	February 13, 2017
Title	黃권한대행 "北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심각한 도발행위"		
Link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2581366615830192&DCD=A00603&OutLnkChk=Y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즈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단단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정부의 '24 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은 24 시간 대응체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고, 익숙할지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어렵고 힘들 때 24 시간 대응체제를 많이 활용하고,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기회가 되어왔었다"고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거듭 안심시켰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 등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나라"라며 "우리 국민은 어떠한 역경도 극복하고 오히려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세감면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아세안·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이스라엘·에콰도르 등과 FTA 타결을 추진해 외투기업이 한국을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15 년과 2016 년 2 년 연속으로 200 억달러가 넘는 기록을 세운 외국인 투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존 슐트 주한미국상의 대표, 류 하이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후지요시 유코 서울재팬클럽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의 대표,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 미키 아츠유키 한국미쓰이물산 사장 등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 22 명이 참석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Naeil Shinmoon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외투기업 지원제도 개편"		
Link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7194		
Source	Internet News		

"외투기업 지원제도 개편"

황 대행 "진입장벽 완화"

이스라엘 FTA 조속 타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완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주력해 왔던 정책이다.

황 권한대행은 13 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격려사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중 조세특례법 시행규칙을 바꿔 정부는 외국인 투자조세감면 대상에 소재부품, 공정기술 등 신기술목록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되면 5 년간 100%의 세금이 면제되고 이후 2 년동안엔 절반만 내면 된다. 또 정부는 올 상반기중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제한하고 있는 28 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의 FTA 를 조속히 타결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황 대행은 전날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급 개량형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라면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단단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당면한 리스크 관리, 물가 안정, 수출과 성장 회복, 내수증진 등의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24 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융 외환 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9 명,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13 명 등 23 명이 참석했다. 장-크리스토프 다베스 주한유럽상의 대표는 애초 참석하려고 했다가 불참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왔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The Munhwa Ilbo	Date	February 13, 2017
Title	구제역·北도발·특검 연장 압박… 시험대 선 황교안		
Link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21301070630000001		
Source	Internet News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진행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 속에

'국정중재 충실' 의도 드러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 일 북한 미사일 도발로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앞선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 위기가 닥치면서 보수진영 대선주자로서 제대로 된 시험대에 선 것이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공안검사 이미지가 강하면서도 군 면제 때문에 진보 진영의 비판과 보수 진영의 우려가 제기돼온 만큼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대응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13 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별도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계획된 일정인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정부는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이미 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제재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점도 황 권한대행의 고민이다. 그는 구제역과 관련해선 "금주 내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는 엉뚱한 지시를 내리며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선 출마 질문을 30 여 차례 받고도 끝까지 확답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권력 의지를 드러냈지만 북한 도발과 구제역으로 대선주자로서 정치적 기로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구애를 계속했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지지가 점점 모인다면 (황 권한대행이) 거절만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야권의 압박 강도는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연장 승인이 절차적 권한임을 내세워 “황 권한대행이 끝내 국민 편이 아니라 적폐의 편에 선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토사구팽”이라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아직 특검 연장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 아니다”고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The Construction Economic Daily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정부,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근본적 개편 추진		
Link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21311114120307 31		
Source	Internet News		

신기술투자 조세감면 및 투자비율제한 업종 재검토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기여도 제고를 위해 조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13 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우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면서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매출의 13%, 수출의 18%, 고용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규모가 사상최대를 기록, 2 년 연속 200 억달러를 초과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투자 지원제도를 개편할 나가기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의 FTA 를 조속히 타결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 등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나라”라며 “앞으로도 우리경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YTN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권한대행 "외국인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www.ytn.co.kr/_ln/0101_201702131124302588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춰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 서울 종로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CPBC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北 도발에 엄정한 조치, 모든 노력 다할 것"		
Link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71421&path=201702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당면한 리스크 관리와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회복 등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24 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융·외환·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행은 특히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I News 24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北 미사일 만반의 대응태세, 투자해달라"		
Link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06320&g_menu=050200&rrf=nv		
Source	Internet News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걱정 말고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13 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 및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이지만 세계 각국과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걱정 말고 투자를 해달라"고 말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북한이 전날 오전 발표한 미사일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전날 구제역과 AI 일일점검회의에서 "북한에서 또 다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즉각적인 응징을 다짐했다.

북한은 12 일 오전 7 시 55 분 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 약 90 도 방향으로 최대 고도 약 550 여 km 였고, 비행거리는 약 500 여 km 였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 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면서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 형 시험발사가 2017 년 2 월 12 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이를 인정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The Herald Busines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黃 "北 도발 만반의 대응...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13000460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일 "정부는 강력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단단히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록 관리함으로써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당면한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회복, 내수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대행이 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이지만 세계 각국과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걱정 말고 투자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황 대행은 이날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마련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대행 측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황 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황 대행 측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NSC 상임위를 개최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지시해 상임위가 개최됐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의장 주재 NSC 가 열리며 그 외의 경우는 매뉴얼대로 NSC 상임위가 열린다. 이에 따른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Money Today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 대행 "북도발에 만반의 대응, 외투기업 경제활동 보장할 것"		
Link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21310025255800&outlink=1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17.2.13/뉴스 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북한도발에 만반의 대응체재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13 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외국인 투자기업 격려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 이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굳건한 안보태세와 동맹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규모가 사상 최대로 2 년 연속 200 억불을 초과하는 기록을 낸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이 우리 경제가 굳건하다는 증거를 대내외적으로 앞장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한대행측 관계자는 "오늘 북한 도발과 관련 권한대행의 추가조치는 없다"면서 "어제 북한 미사일발사 직후 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박 대통령 탄핵의결이후 첫 북한의 미사일 도발인 만큼 권한대행주재로 NSC 를 열어 대응해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관련,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의장 주재 NSC 가 열리며 그 외의 경우는 매뉴얼대로 NSC 상임위가 열리고 이에 따른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E Today	Date	February 13, 2017
Title	대권도전 부정 안하는 黃 대행, 경제챙기기 행보 해석 분분		
Link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54385		
Source	Internet News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 경제 챙기기 행보를 본격화해 해석이 분분하다.

황 권한대행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22 명을 만났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와 경제 정책의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 기업 매출의 13%, 수출의 18%, 고용의 6%를 담당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행보에는 경제 살리기에도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 권한대행의 행보는 오는 22 일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100 여 명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직접 '규제개혁 국민공모' 아이디어 제안자, 경제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달 마지막 주에는 경제부처 최대 행사인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주재한다.

이처럼 대권에 도전하는 듯한 황 권한대행의 광폭행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선 출마에 관해선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도 의원들이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37 차례에 걸쳐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식이었다. 그러면서도 특검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보수층의 호응을

이끌어낼 만한 발언을 이어가 자신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황 권한대행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페이스북 계정이 최근 여권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2 만 명이던 팔로어가 4 만 2000 명으로 두배 늘었다. 보수 진영 대선 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보다 많은 팔로어 숫자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KBS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 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27702&ref=A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13 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단단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당면한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회복, 내수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4 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융·외환·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행은 그러면서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며 "수출을 가속화하고, 해외인프라 사업수주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Asia Today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외국인 투자자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한다”		
Link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213010007959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세계 각국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태세 갖춰…걱정말고 투자해달라"

아시아투데이 허고운 기자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3 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세계 각국과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해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황 대행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단단히 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무력 위협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했다.

황 대행은 또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 등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나라”라며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의 이날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 경제의 기초와 안보 대응태세에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지난 2015 년 이후 연간 200 억달러가 넘는 외국인 투자 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황 대행은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한국도 잘되고, 여러 기업들도 잘되고, 여러분의 고국도 잘되는 윈윈윈(wn-win-win)의 아침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SBS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 권한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39852&plink=ORI&cooper=NAVER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가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행은 오늘(13 일)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대행은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 대해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며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 대행은 오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14 명과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렵지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The Asia Business Daily	Date	February 13, 2017
Title	黃권한대행 "北 도발, 엄정 조치 이뤄지도록 노력"		
Link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1310050732952		
Source	Internet News		

"NSC 직접 주재할 사안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13 일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외국인 투자기업 격려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앞으로 보다 단단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의 북한 미사일 대응 관련 발언은 전날 구제역·조류독감 일일점검회의 이후 두번째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정부는 강력한 안보역량, 동맹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북한 미사일 대응 회의를 권한대행이 주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의장 주재 NSC 가 열리지만 그 외의 경우는 매뉴얼대로 NSC 상임위가 개최된다"면서 "이에 따른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News1	Date	February 13, 2017
Title	黃권한대행 "외국인 투자기업, 우리 경제에 지속 투자해달라"		
Link	http://news1.kr/articles/?2910185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실 제공) 2017.2.12/뉴스 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외국인 투자가 고용, 수출, 투자, 산업경쟁력 등에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강화,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평가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 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FTA 를 조속히 타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외환 시장의 면밀한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해외 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ICT 와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외국상의 대표 10 명과 외국인 투자기업 CEO 13 명 등 총 23 명을 비롯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재홍 코트라 사장 등이 참석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黃권한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3/0200000000AKR20170213057900001.HTML?input=1195m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행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일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단단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당면한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회복, 내수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4 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융·외환·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며 "수출을 가속화하고, 해외인프라 사업수주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Dailian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데 최선"		
Link	http://www.dailian.co.kr/news/view/612188/?sc=naver		
Source	Internet News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 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 일 주한 외국인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23 명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경제의 기초와 경제 정책의 기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키고, 2015 년과 2016 년 2 년 연속 200 억불이 넘는 사상 최대의 투자기록을 세운 외국인 투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황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인 녹록치 않다”면서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여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외환 시장의 면밀한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매출의 13%, 수출의 18%, 고용의 6%를 담당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강화,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평가 등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 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FTA 를 조속히 타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 대행 "외투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13_0014700854&cID=10301&pID=10300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 일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매출의 13%, 수출의 18%, 고용의 6%를 담당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행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외환 시장의 면밀한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해외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ICT 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우리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키고, 최근 2 년 연속 200 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의 투자기록을 세운 외국인 투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황 대행 측은 전했다.

간담회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김재홍 코트라 사장, 23 명의 주한 외국인상공회의소 및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Aju Business Newspaper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권한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www.ajunews.com/view/20170213151621178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사진=연합]

황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단단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를 당부하는 등 경제 행보에 주력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회복, 내수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수출을 가속화하고 범정부적으로 해외인프라 사업수주를 지원해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젊은 과학기술인 15 명과 간담회를 한다.

한편 황 권한대행의 페이스북 계정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 일 현재 황 권한대행 페이스북의 팔로워는 4 만 2000 여 명이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Joongdo Ilbo	Date	February 13, 2017
Title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		
Link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2132183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서 밝혀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 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 경제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한 외국인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등 23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대한민국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 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경고한 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강력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가 당면한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회복, 내수증진 등을 위해 '24 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융・외환・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면서 "해외시장 진출, 창업활성화, 과학기술과 ICT, 규제 개혁을 통해서 위기상황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3 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가속화하고, 특별히 해외인프라 사업수주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올 역점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가 누구나 쉽게 창업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자금지원, 판로지원과 '창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은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과 ICT 를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며 "제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매출의 13%, 수출의 18%, 고용의 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유・활용하고 있는 첨단 기술과 경영기법은 국내기업의 기술・경영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쳐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강화,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평가 등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 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FTA 를 조속히 타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Korea.net	Date	February 13, 2017
Title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28816&call_from=naver_news		
Source	Internet News		

황 권한대행,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서 "인센티브 강화·아세안 등 FTA 확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일 "정부는 강력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단단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당면한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회복, 내수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수출을 가속화하고 범정부적으로 해외인프라 사업수주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규모가 사상최대, 2 년 연속 200 억불을 초과하는 기록을 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의 경제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의 FTA 를 조속히 타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黃권한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종합2보)		
Link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3/0200000000AKR20170213110300001.HTML?input=1195m		
Source	Internet News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행위"

황권한대행 페이스북 팔로워 4만2천명으로 두달새 2배 늘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일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단단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경제에 대해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며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존 슐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위하이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수석대표, 후지요시 유코(藤吉優行)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9명과 외국인 투자기업 CEO 13명 등 22명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15 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렵지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화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NSC 상임위를 개최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경우 의장 주재 NSC 가 열리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매뉴얼대로 상임위가 열린다.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며 "오늘 황 권한대행의 추가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의 페이스북 계정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 일 현재 황 권한대행 페이스북의 팔로워는 4 만 2 천여 명이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해 12 월 7 일 "2 만 명이 넘는 페친분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보면 두 달여 동안 2 배가 넘는 팔로워가 생긴 것이다.

또 '좋아요'를 누른 방문자도 3 만 9 천여 명에 달한다. 지난달 30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는 5 천 200 여 명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Chung Cheong Today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청와대 “정부 안보태세 굳건 외투기업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39091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 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단단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를 당부하는 등 경제 행보에 주력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회복, 내수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DaeJeon Today	Date	February 13, 2017
Title	"굳건한 안보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245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일 "정부는 강력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단단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당면한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회복, 내수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수출을 가속화하고 범정부적으로 해외인프라 사업수주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규모가 사상최대, 2 년 연속 200 억불을 초과하는 기록을 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의 경제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의 FTA 를 조속히 타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Seoul Economic Daily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 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투기업 안정적 활동 보장"		
Link	http://www.sedaily.com/NewsView/1OC2VSHJFK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 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 일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라 안보불안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 기업들을 안심시키려는 발언으로 읽힌다.

황 대행은 이날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어제(12 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단단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 일 서울 새문안로의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황 대행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 전체 기업 매출의 13%, 수출의 18%, 고용의 6%를 차지한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활용하고 있는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은 국내 기업의 기술·경영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쳐 한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고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벌여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대행은 "아세안(ASEAN)·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이스라엘·에콰도르 등과의 FTA 를 조속히 타결하는 등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Newspim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대행 "굳건한 안보로 '외투기업'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213000299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일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오른쪽)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왼쪽 두번째)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단단히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경제에 대해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며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록 관리함으로써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정부가 당면한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회복, 내수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해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NSC 상임위를 개최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지시해 상임위가 개최됐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의장 주재 NSC 가 열리며 그 외의 경우는 매뉴얼대로 NSC 상임위가 열린다. 이에 따른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는 존 슐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위하이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수석대표, 후지요시 유코(藤吉優行)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9 명과 외국인 투자기업 CEO 13 명 등 22 명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15 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경제가 어렵지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Shin A Ilbo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굳건한 안보로 외투기업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844		
Source	Internet News		

외투기업 간담회… "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위반·심각한 도발"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13 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단단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경제에 대해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존 슐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위하이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수석대표, 후지요시 유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9 명과 외국인 투자기업 CEO 13 명 등 22 명이 참석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15 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렵지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News1	Date	February 13, 2017
Title	黃대행 "北도발에 만반의 대응…외투기업 경제활동 보장"(종합)		
Link	http://news1.kr/articles/?2910838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17.2.13/뉴스 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동맹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 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 활동 보장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가 고용, 수출, 투자, 산업경쟁력 등에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강화, 신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 평가 등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 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FTA 를 조속히 타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외환 시장의 면밀한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ICT 와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외국상의 대표 10 명과 외국인 투자기업 CEO 13 명 등 총 23 명을 비롯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재홍 코트라 사장 등이 참석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Sisa Week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의 대선출마 변수는 구제역과 북한 미사일		
Link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75		
Source	Internet News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 북한의 도발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뉴시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은 국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10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무려 40 여 차례 있었던 대선출마 의향에 대한 답이다.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은 ‘대선출마’를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보수진영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통해 지지층의 신뢰를 되찾고, 정권재창출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황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시험대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나타났다. AI 에 이은 구제역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대책이 바로미터다. AI 가 지난해 11 월 발생했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황 권한대행은 교체설이 돌던 때다. 반면 구제역은 황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기간에 확진판정이 났다. 방역에 실패할 경우 오롯이 황 권한대행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한 듯 정부는 구제역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민관합동 구제역 회의를 연일 주재하며 대책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적인 백신예방 접종도 서두르고 있다. 물론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8 일 새벽 경기도 연천에서 A 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됐음에도 같은 날 오전 구제역 대책회의까지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대정부 질문에서 지적이 일자 황 권한대행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북한이 공개한 북극성 2 호 발사모습. 당초 예상했던 무수단 미사일 개량형이 아닌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 일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특히 초기 추정됐던 무수단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한 북극성 2 호로 나타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성공은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개발이 궤도에 올랐다는 점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직전단계로 군 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원론적인 선에서 북한을 규탄했던 미국과 일본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3 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 및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이지만 세계 각국과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걱정 말고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체가 황 권한대행의 대선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선행보를 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보이슈가 여권주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황 권한대행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새 행정부, 한국의 정치격변기에 대해 북한이 간을 보기 위해서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실 트럼프와 아베를 겨냥했는데, 유탄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맞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구제역의 조기 수습에 실패하고 안보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결국 한 치의 국정 공백도 허용돼선 안 된다는 바람이 불거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출마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있는 변수”라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Asia Today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북한 도발 만반 대응, 외국 투자기업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213010008506		
Source	Internet News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가운데)이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주한 미국상의 회장인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등과 한국 투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탄핵 정국·북한 핵 미사일 군사 도발 위협, 한국경제 기초·경제정책 흔들림 없어...외국인 투자기업 지속 투자 '코리아 세일즈' 행보 심혈...기업하기 좋은 환경 최선..."안보 공백 없도록 범정부 차원 종합 대응"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3 일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동맹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직접 찾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 기조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2015~2016 년 2 년 연속 200 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의 투자 기록을 세운 외국인 투자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코리아 세일즈 행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황 대행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일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도발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또 황 대행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단단히 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황 대행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 경제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갖고 보다 적극 투자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존 슐트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 위 하이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수석대표, 후지요시 유코(藤吉優行)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9 명과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13 명 등 22 명이 참석했다.

황 대행 측은 북한의 기습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황 대행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력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의장 주재로 NSC 가 열리지만 그 외의 경우는 매뉴얼대로 NSC 상임위가 열린다"면서 "이에 따른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황 대행 측은 "중차대한 시점에 나온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황 대행이 지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사례와 사안 성격을 볼 때 안보실장 주재가 맞다는 판단에 긴급회의를 했다"면서 "지난해 북한이

24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대통령 참석 정도의 위중한 도발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몇 개"라고 답변했다.

황 대행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2 일 당일 발사 30 여 분 만에 직접 주재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에서 "오늘 아침 7 시 55 분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한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 형 시험발사가 2017 년 2 월 12 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현지에서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위력한 핵공격수단이 또 하나 탄생'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고 평가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The Daegu Shinmun	Date	February 13, 2017
Title	黃 대행 "외투기업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Link	http://www.idaegu.co.kr/news.php?code=ol&mode=view&num=218162		
Source	Internet News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인센티브 확대 등 약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일 "정부는 강력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경제에 대해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며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존 슐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위하이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수석대표, 후지요시 유코(藤吉優行)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9 명과 외국인 투자기업 CEO 13 명 등 22 명이 참석했다. 장원규기자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Photo News

Presidential Roundtable for Foreign Investors

Grand Ballroom, Four Seasons Hotel Seoul
Monday, February 13, 2017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AMCHAM chief at podium**		
Link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ForeignGallery/view.aspx?lang=EN&contents_id=PYH20170213061100341		
Source	Photo News		



James Kim, the president of GM Korea who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speaks at a "Roundtable for Foreign Investors" at a hotel in Seoul on Feb. 13, 2017. (Yonhap)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Acting President Hwang with foreign investors**		
Link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ForeignGallery/view.aspx?lang=EN&contents_id=PYH20170213050800341		
Source	Photo News		



Acting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Hwang Kyo-ahn speaks at a "Roundtable for Foreign Investors" at a hotel in Seoul on Feb. 13, 2017. (Yonhabp)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Acting President Hwang with foreign investors**		
Link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ForeignGallery/view.aspx?lang=EN&contents_id=PYH20170213041700341		
Source	Photo News		



Acting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Hwang Kyo-ahn (C) speaks to participants at a "Roundtable for Foreign Investors" at a hotel in Seoul on Feb. 13, 2017. (Yonhap) (END)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참석자들과 환담 나누는 황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945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오른쪽)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왼쪽 세번째)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 권한대행,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944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오른쪽)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왼쪽 두번째)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주한상의 대표들 만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940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오른쪽 세번째)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왼쪽 두번째)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권한대행,'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811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권한대행,'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807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주한상의 대표들 만난 황교안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943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오른쪽)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왼쪽 두번째)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권한대행,'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812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권한대행,'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808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권한대행,'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810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권한대행,'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809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2.13

AMCHAM Since 1953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참석한 황교안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4086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인사말하는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4087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박수 치는 황교안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4085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의 인사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17.02.13

AMCHAM Since 1953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환담 나누는 황교안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939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오른쪽)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왼쪽)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주한상의 대표들 만난 황교안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941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왼쪽 두번째)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7.02.13

AMCHAM Since 1953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인사 나누는 황교안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951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2.1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환담 나누는 황교안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946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오른쪽 두번째)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왼쪽 두번째)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인사말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561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인 제임스 김 GM 코리아 대표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45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인 제임스 김 GM 코리아 대표 등 참석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38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인 제임스 김 GM 코리아 대표 등 참석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40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인 제임스 김 GM 코리아 대표 등 참석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555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514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513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인사말하는 황 대행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97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단상으로 나가는 황 대행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87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단상으로 나가는 황 대행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88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인사말하는 황 대행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91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인사말하는 황 대행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93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물 마시는 황 대행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66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 대행,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인사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60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 대행,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인사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61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 대행,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인사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62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 대행,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인사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63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18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14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00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대화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2130404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1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주한상의 대표들 만난 황교안 대행		
Link	http://news1.kr/photos/details/?2382399		
Source	Photo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한국지엠 사장과 슈테판 할루자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겸 브로제 코리아 사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17.2.13/뉴스 1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1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인사 나누는 황교안 권한대행		
Link	http://news1.kr/photos/details/?2382400		
Source	Photo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17.2.13/뉴스 1

AMCHAM Since 1953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Photo News Clipping

Media	Asia News Agency	**Date**	February 13, 2017
Title	황교안 권한대행,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방문		
Link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27671&thread=01r01		
Source	Photo 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23 명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4079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4080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황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950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인사 나누는 황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949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인사 나누는 황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3948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인사말하는 황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4081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2.13

Photo News Clipping

Media	NEWSIS	Date	February 13, 2017
Title	인사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Link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213_0012684083		
Source	Photo News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 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2.13